

중국 중앙편역출판사 허이옌 사장

“한국 출판사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지합니다”



“내실 있는 한국의 출판사들이 중국 출판시장에 진출한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초청으로 내한, ‘한국 출판사의 중국시장 진출 방향’을 주제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한 중국 중앙편역출판사 허이옌 사장은 “한국 출판사들의 과감한 중국 시장 공략”을 주문했다. 현재 중국 출판 시장은 출간종수 20만 종, 판매총액 12조 원(1,000억 위엔), 일인당 평균 도서 구매액 10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허이옌 사장은 중국 출판시장의 현실과 한국 출판사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법률적 조건 등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한류 등을 통해 입증된 근접 문화권에 있는 한국 출판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허이옌 사장은 중국 내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국인들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원천 책을 찾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 드라마의 경우 책이 중국 시장 내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류 열풍이 시들해질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결국 드라마 수출과 연계해 시나리오나 도서를 함께 수출한다면 한류 열풍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시장 내에서 이른바 ‘베끼기 도서’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이옌 사장은 현재 중국에서 교육 열풍으로 인한 유아아동 물이나 한류 붐으로 인한 방송물, 화장·미용·복식 등 실용서, 언어학습서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출판사들의 진출을 부탁했다. 파주출판단지 와 마포구 일대 출판사들을 방문한 허이옌 사장은 내실 있는 규모로 출판에 매진하는 한국 출판사들의 열정에 감동, 방한 기간 내내 자신이 한국 출판사들의 중국 진출의 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

취재·장동석 기자 | 사진·박신우 기자